

Toray, 에어백 나일론66 생산확대

글로벌 생산채재 구축 가속화 ... 중국 · 유럽 · 미국에서도 FS 개시

일본 Toray는 자동차용 에어백에 사용되는 Nylon66 Fiber와 Textile의 글로벌 생산에 나서 사용처의 현지 생산화에 대응해 중국 및 유럽 생산을 위한 FS(사업화 조사)를 개시했다.

타이에서 먼저 Textile 생산을 개시한 상태로, 세계적으로 수요가 왕성하기 때문에 2005년경 공급이 부족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조기에 자사거점을 활용한 현지생산체제를 구축하려는 것이다.

우선 중국에서 Textile 생산에 착수한 후 섬유 생산을 개시할 방침이며, 이와 병행해 유럽에서도 Textile 생산에 나설 계획이다.

자동차용 에어백에 사용되는 나일론66 섬유는 현재 운전석, 조수석, 측면에 대당 약 1kg 사용되고 있다.

최근 안전지향의식이 높아지면서 이미 측면충돌과 횡전시에 대응해 고급차에 탑재돼 있는 커튼에어백 사용이 더욱 확대될 전망으로, Toyota 자동차 등은 2006년까지 옵션을 포함해 전 승용차에 탑재할 계획이다.

커튼에어백 하나당 나일론 66섬유가 1kg 사용되기 때문에 Textile을 포함해 중장기적으로 수요가 급성장할 전망이다.

Toray는 일본에 이어, 자동차 관련 생산기지화가 진전되고 있는 타이에서 Fiber · Textile 생산을 계획중인 데, 먼저 자회사인 LTX(Luckytex Thailand)에서 월 10만m 생산을 개시했다.

2005년 말까지 30만m로 생산능력을 확장할 계획이며, 섬유에서는 자회사인 TFL(Toray Fibers Thailand)에 2기에 걸쳐 2005년 말까지 합계 6000톤 설비를 신설할 방침이다.

한편, 중국이나 유럽에서 에어백 공급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자사거점을 활용한 생산체제를 구축할 의향으로 FS를 개시했다.

Textile에서는 중국 Polyester 장섬유 염색 · 織布거점인 TSD(Toray Sakai Weaving & Dyeing)에서, 이후 Polyester섬유의 제조거점인 TFNL(Toray Fibers (Nantong))에서 섬유 생산에 착수할 계획이다.

병행해서 현재 현지 메이커에 Textile 생산을 위탁하고 있는 유럽에서는 영국의 Polyester 염색 · 織布 거점인 TTEL(Toray Textiles Europe)과 체코의 거점인 TTCE(Toray Textiles Central Europe)를 활용한 Textile 생산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또 에어백은 소형화 · 경량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어, Toray에서는 독자개발품인 편평단면계의 판매확대를 꾀하고 있다.

편평단면계는 기존의 원형단면계와 동등한 강도를 유지하면서, 사용량은 종래 대비 15%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경량화 · 소형화 요구에 대응하며 코스트 절감도 가능한 제품으로서 세계적으로 거래가 늘고 있는 추세이다. Toray에서는 편평단면계의 비율을 빠른 시일 내 50%로 늘릴 계획이다.

<Chemical Daily News 2003/04/10>